



## 기독교에의 바른 이해

정 진 경

<서울신학대학 교무과장 서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눅10: 25-37)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이며 신학자인 라일홀드 니이버 교수는 흔히 기독교를 예언자의 종교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의 많은 저서중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는 기독교의 본 바탕을 두가지 차원의 건전한 조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수직적인 신앙의 차원과 아래로 이웃에 사는 인간을 향하는 수평적인 사회성의 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에 성서의 기독교는 실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니이버의 이런 주장은 삼십여년 전 그 당시의 정통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양쪽에 다같이 던진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교리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던 정통주의 교회에는 이웃을 향하는 사회 참여의 결함을 지적하였고 또 이웃을 향하여 참여 의식만을 고조하던 자유주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입체적인 신앙의 부족을 지적함으로써 양쪽에 대하여 모두 대담한 개혁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으로 조화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외국인 크리스천이 한국 교회의 분쟁하는 것을 보고 가서 야유하기를 한국에 가보니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좀 불쾌하게 들리는 이 야유 섞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으로만 생각하여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에 머물면 이것은 종교는 될지 모르나 우리가 믿는 참 기독교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할 때 이것은 신앙없는 하나의 휴머니즘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 참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이 두 성격의 완전한 조화가 없이는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참된 성서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니이버의 말대로 두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기독교는 종교이면서 종교만은 아니라는 것과 윤리이면서 윤리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즉 영원과 시간, 절대와 상대, 무한과 유한, 완전과 불완전의 주체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윤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 교회와 사회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지상 봉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만 생각할 때 모든 가치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게 되며 인간 이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어느 차원이 먼저냐 할 때 그 순서에 있어서 신앙이 먼저요, 사회 봉사가 결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성서적인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창립 이래 해방될 때까지 지나치게 교리적인 신앙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은 아주 잃어버린 지대처럼 극히 등한이 해왔습니다. 고로 과거 80여년간 한국교회의 역사를 두고 생각할 때 3.1 운동을 전후하여 있었던 소수의 초대 교회의 사회 운동을 제외하고는 그후 해방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웃에 향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철야 부흥회를 사양치 않으면서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하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이방인의 지대처럼 불신자의 손에 내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일면만을 이해하고 다른면은 보지 못한데서 온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한국 교회 신자들이 망각하고 있던 기독교의 다른 면을 바로 봄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바로고 진정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면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신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

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인간 존엄의 이름으로 이웃 사랑의 사회적 책임을 행한 자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라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회적 교훈을 진실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베넬교수는 인류의 레위인요 제사장인 근대 기독교가 그 신조의 하던 일을 본받아 세상에서 가련한 피해자들을 산간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토지와 공장을 독점함으로써 마침내 역사의 심판주는 이방인인 공산당으로 하여금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회적 구제의 구호를 들고 역사에 등장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무능을 말한 것과 결코 공산당이 인류와 세계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설박감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판가리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과감하게 사회적인 책임수행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표현인 교회는 국가세계 인류의 봉사자로서 자기 위치를 생각해야 하며 올바른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자기 본위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는 누구보다도 인류사회와 국가의 불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치가들이 민족 국가에 주는 손해 보다도 무책임한 종교인들이 주는 손상이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날 우리도 망합니다. 고로 국가적인 불행 사회적인 불안은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요 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주의적 현실 포기는 악한 현실에 대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사회문제에 대한 외면은 곧 사회악에 대한 공범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의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에는 두가지ニュ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는 그 악을 시정하려고 노력도 생각도 하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언제나 한국이라는 땅에 붙어 있습니다. 고로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밖에서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불명여리가 서울에 쏟아질 경우 십자가를 단 교회지붕이라고 안 떨어질리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민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듯이 오늘 우리

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고파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고 나만 독점하려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의 사명은 넓고 교회 안에서외 자기 농성, 자기도와 건물 속에서만의 궁색스런 활동, 자기만 구원 얻으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 시대의 모든 질병을 나누어지고 이웃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동네 길도 쓸 줄 아는, 세금도 잘 바치고 수도, 전기도 아껴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나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 개인만 위함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사인고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 전체의 증생울 목표로 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사건은 신앙의 차원에서만 맴돌아서는 안되고 이것이 사회라는 차원에서 결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봄에의 招待

정진경 목사의 3인 공저

—각 교단 대표적 설교자들의 현대설교—향린사간 285면 300원